

흔들리는 한-러 관계...실낱같은 대화의 끈 잡아야

러시아 푸틴 대통령 집권 5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취임식을 통해 집권 5기에 들어서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 등으로 흔들리는 한-러 관계에 반전의 계기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푸틴 대통령이 '득표율 87.28%'로 확인된 러시아 국민의 견고한 지지 속에 기존의 대외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전문가패널의 입기 연장이 러시아의 고집으로 무산된 데서 보듯 북핵문제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가진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80년대 말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이래 점차 개선돼 왔던 한러관계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구도 여전할듯...북러협력 심화 우려 속 한러, 관리 필요성 공유

한국이 서방의 대러제재에 동참하자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며 반발했다. 특히 북러가 불법적 군사협력에 나서자 한국은 대러 독자제재에 나서며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양국 갈등은 지난 3월 한국인 선교사가 러시아에서 간접 협의로 구금되고 러시아 불소가 발레단의 한국 공연이 취소되는 등 정치·군사적인 수준을 넘어 사회·문화 전반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한러관계는 북중러 밀착 심화의 흐름과 맞물려 앞으로 반전의 기회를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대립 구도 속에 한러관계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달 중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며 결속을 재차 확

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바로 북한 방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에 응했으며,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과정에서 북러 간 군사협력이 심화한다면 한국으로선 미국·일본 등 우방과 협력해 대러·대북 공세의 고삐를 더욱 쥘 수밖에 없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공급하고 있고, 러시아는 반대급부로 식량·에너지는 물론 위성기술 등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 BBC방송은 5일(현지시간)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북한제 미사일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제재를 회피해 미국·유럽산 부품을 불

법 조달하고 미사일을 만들어 최전선의 러시아군에 보내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나아가 러시아가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한러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지난 3월 대선을 앞두고 공개된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체적인 '핵우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러시아가 북핵에 있어 더는 선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러관계에서 최소한의 상황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태리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 한러관계에 약제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러시아가 북핵 관련 어디까지 입장 변화를 가져갈지 고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관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도 안드레이 루렌코 외무차관이 지난 2월 방한해 소통에 나서는 등 한국과의 관계 관리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접점을 찾는 여지가 있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쪽'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대립하는 러시아로서는 '동쪽'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기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결국 우리 외교는 대러관계에 있어 안팎의 무수한 도전 속에 실낱같은 대화의 끈을 부여잡아만 상황이 됐다.

이규형 전 주러시아 대사는 "러시아도 우리도 서로가 지역의 평화·안정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라며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비정상적인 상황을 종식하기 위해 더 건설적 입장을 취하길 바라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프랑스 '세계에서 가장 긴 바게트' 탈환 프랑스가 이탈리아에 빼앗겼던 '세계에서 가장 긴 바게트' 기록을 5년여만에 되찾아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5일(현지시간) 프랑스 제빵사 12명이 14시간 만에 140.53m 길이의 바게트를 구워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파리 인근 도시 쉬렌 당국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긴 바게트 기록이 깨졌다"라며 기록 탈환 소식을 알렸다. /연합뉴스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 난항

이스라엘, 하마스 로켓공격에 보복...'곧 라파 군사작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종전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흔들리면서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최근 재개된 협상에서 양측이 휴전 기간과 인질·수감자 석방 등 상당수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때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그러나 하마스가 거듭 종전을 요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재로서는 휴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10여발의 로켓을 쏘고, 이에 보복 공습을 가한 이스라엘이 조만간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서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협상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협상 대표단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의에 마치고 지도부와 이견 조율을 위해 카타르 도하로 간다고 밝혔다.

이집트 관영 알카히라 뉴스는 도하로 간 협상단이 7일 돌아와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마스 협상단은 어떤 휴전 합의든 종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팔레스타인 당국자들은 전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인질 석방의 대가로 전투를 잠시 멈출 수는 있다"면서도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군사 작전 종료와 가자지구 철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한 당국자는 로이터에 협상이 거의 결렬에 가까운 상태라고 전했다.

협상이 결렬 위기에 처하자 협상장에 머물던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도하에서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와 긴급 회담할 예정이다.

이스라엘 매체는 번스 국장이 6일 네타냐후 총리와 도하에서 회담했다고 보도했으나 그가 예정대로 이스라엘을 방문할지는 불확실하다고 AP는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5일 가자지구 북부 분리 장벽 인근에 있는 이스라엘 측 케렘 샬롬 검문소로 14발의 로켓포탄이 떨어져 이스라엘군 3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했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다.

앞서 하마스의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은 자신들이 검문소 인근 이스라엘군 기지를 겨냥해 로켓을 쏘았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은 로켓 발사 원점인 라파 인근의 살람 지역에 대한 보복 공습을 가했다.

로이터, AFP 통신은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 등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라파에 공습을 가해 최소 19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하마스의 검문소 공격 직후 "하마스가 우리와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다는 우려스러운 신호를 목격하고 있다"면서 "이는 강력한 군사 작전이 라파와 가자지구 나머지 지역에서 머지않아 시작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이래 충돌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5일 또한번 공격을 주고 받았다.

이스라엘이 이날 레바논 남부 마을을 공습해 4명의 일가족이 사망했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가했다고 레바논 국영 뉴스통신사 NNA가 전했다. /연합뉴스

'큰손' 중국인 옛말...노동절 홍콩 '저가 여행' 대세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씬숨이를 줄이는 중국인들이 올해 노동절 연휴(1-5일) 기간 저렴한 홍콩 당일치기 여행을 선호했다고 홍콩 사우사치이나 모닝포스트(SCMP)가 5일 보도했다.

SCMP는 노동절 연휴 첫 나흘간 중국 본토 여행객 67만명이 홍콩을 찾았다고 이같이 전했다.

이 가운데 광시좡족자치구의 베니 양 씨(21) 씨는 홍콩 당일 여행을 위해 여자친구와 함께 숙소를

중국 선전 푸젠구에 잡았다. 홍콩과 선전은 붙어있어 버스, 기차 등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그는 "요즘 저가 여행이 대세"라면서 "선전에서는 더블룸을 1박에 400위안(약 7만5천원)이면 빌릴 수 있는데, 홍콩 호텔은 1박에 2천홍콩달러(약 35만원)나 한다"고 말했다.

폭우가 쏟아진 지난 4일 한 쇼핑센터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쇼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고급 브랜드에 관심이 없다"면서 "여행경비를 대부분 길거리 간식과 저렴한 식사에 쓴다"고 했다.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수 추천에 따라 홍콩 시내를 돌면서 쓴 돈은 800홍콩달러(약 14만원)였다.

과거 중국 관광객들은 홍콩 사치품 시장의 큰손으로 통했지만, 지난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로는 저가 여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 등으로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전망마저 어둡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충선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